

이기는 삶

자존심을 꺾자

썩지 않는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자존심의 포기 없는 생의 꽃봉오리를 맺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자존심도 지키고 목적도 달성하는 그런 녹록(錄錄)한 세상이 아니다. 성공하는 삶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 자존심만 포기하면 흙과 태양과 비와 바람이 저절로 원하는 꽃을 가꾸어 줄 것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도 되도록 침묵해야 한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똑똑함보다는 옳고 그른 것 모두를 포용하는 여러스러움이 오히려 훌륭한 거름이 된다.

고집쟁이, 아집쟁이는 결국 도태(淘汰)되고 마는 법이다. 그것은 스스로 왕따가 되는 길이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주관이 뚜렷하여 융통성이 없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되도록 피하게 된다. 언제 어느 때 나의 말꼬리를 물고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논쟁

이 벌어지면 절대 양보가 없다. 자신의 명석한 논리로 상대방의 어리석은 생각을 꺾어놓아야 직성이 풀린다. 누군가 자신의 논리에 대하여 반박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항변한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교만(驕慢)이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나만 똑똑하고 잘나서는 분란(紛亂)의 소지(素地)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겸손(謙遜)을 배워야 한다.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이다. 자세를 낮추고 양보하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겸손의 미덕을 겸비할 수 있다. 겸손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가장 뛰어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동료의 두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다.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초패왕 황우는 힘과 기개에 있어 유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독불장군(獨不將軍)이었던 황우는 비범한 지략가인 범중마저 신임하지 못하고 내쳤지만 유방은 정치, 군사, 전략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소하, 한신, 장량을 믿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김으로써 결국 천하를 얻게 되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유방과 한신의 대화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진심으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나쁜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종교란 진리구현이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이다. 그러므로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는 존재이다.

습관은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항상 변치 않게 유지할 때 좋은 결과를 낳는다. 실천하는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을 이기는 몸과 마음의 승리가 영생의 주인공이니 우리 모두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자!

허체 비만 여성을 위한 메뚜기자세

허벅지 바깥쪽이 엉덩이보다 볼거져 나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평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에 의해 골반이 어긋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운동부족이 대부분이다. 평소 빨리 걷는 습관 등을 통해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체비만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메뚜기자세는 하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허리뼈와 엉덩이뼈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자세다.

허리 쪽에 힘이 들어가야 바른 걸음과 바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하체비만여성에게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동작①: 엎드린 자세로 다리를 펴서 모으고 팔도 펴서 허벅지 옆에 놓는다. 턱을 바닥에 대고 깊고 고른 호흡을 3~5회 한다.

동작②: 숨을 마시면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최대한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는 다리의 골반 뼈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3회. 동작하기 힘들었던 다리를 1~2회 더 반복해 준다.

동작③: 양 손을 안으로 가게 주먹을 쥐고 아랫배를 집어넣는다.

동작④: 숨을 마시고 내쉬기를 2~3회 반복하며 숨을 고른 다음, 숨을 마시면서 양발을 힘차게 높이 들어 올린다. 손으로 바닥을 힘껏 누르고 체



중은 가슴과 턱으로 지탱한다. 다리를 쭉 펴고 하반신 전체를 올리려는 느낌으로 실시한다. 10초 유지 5회.*



격암유록 新해설 제15회

무릉도원의 선경을 알려거든 새벽별이 밝게 비치어 임하는 평천(소사)에 계시는 정도령을 찾아가라

未運論(三) 말운론

古人鄭氏 牛性夭死 人作孽自取禍 無可奈何 무기탄내하
且易曰先天不違 後天奉時性 후천봉시우성
農夫石井崑 농부석정곤
我邦之人 君知否 아방지인 군지부

옛사람으로 정도령 또는 우성인이라고 칭하던 자들은 다 요절하여 죽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의붓자식 같아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던 바 한탄할 수도 없으니 어찌하리오?

역에 이르기를 선천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후천이 하늘의 뜻을 받들 때 우성인 농부가 나오나니 이른바 곤륜산의 석정인데 즉 천정수로 농사 짓는 영적 농부인 진짜 정도령 우성인이나오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여 그대들 진정코 알겠는가?

欲識養生桃源境 曠野平川照臨 曉星平川照臨 非山非野十勝論 비산비야십승론
忽伯千艘何處地 牛性在野豫定地 人心變化十勝論 비산비야십승론
非山非野十勝論 비산비야십승론
背弓不知 雙山和 배궁부지 쌍산화
先後天地亞亞白蘭 背山十勝兩白圖 배산십승양백도
腹山工夫道通世 복산공부도통세

창생들이여 무릉도원의 선경을 알려거든 새벽별이 밝게 비치어 임하는 평천에 계시는 정도령을 찾아가라. 새벽별은 밝은 별이며 정도령의 합자이고 조림은 정도령이 조(曹)씨로 오신다는 뜻이다.
새41(賽四一)에 나오는 '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조표풍지인(人生秋收糶米端風驅飛 糟飄風之人)' 라고 하였다. 인생추수는 조(曹)씨가 한다는 뜻이다.

평천은 옛날의 부평 부천 인천지역으로 오늘날의 소사지역이다. 정도령의 성명과 계시는 장소를 설명한 부분이다.
무릉도원은 산도 들도 아닌 심승을 말함이다. 홀연히 천척의 배가 정박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성은 들에 있음이니 우성인(정도령)이 나오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곳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승을 논하는 마음이니 곧 신선촌이 나라.

눈에 보이는 산도 들도 아니요 산이 아닌 우복동이다. 우(牛)자의 배에 있는 십(十)자를 말한다. 궁(弓)자 돌이 등을 지게 한 것(亞)임을 모르겠거든 산(山)자를 사이좋게 놓아보아라(출출). 거기에서 십(十)자가 나온다.

선후천지 양백에서 불야(亞)가 나오느니라. 배산(背山)에서 심승이 나오고 하도낙서의 양백에서도 심승이 나오느니라.

우복(牛腹)과 배산(背山) 쌍산화(雙山和)를 공부하면 도통하느니라. 십

(十)자의 이치를 알면 도통한다는 얘기이다.

不知種挑人 부지종도인
仙源種挑弓裡 선원종도궁리
十處十勝十字處 십처십승십자처
上中下異運 상중하이운
中晴一二三 중청일이삼
聖壽何短 十勝說 성수하단십승설
入於三時無用 입어삼시무용
忠則盡命悲極運 충즉진명비극운

종도인(영생의 천도복승아를 심는 사람들)을 모르는가? 선원 즉 무릉도원에서 천도복승아를 심는 분이 궁궁(십승) 속에 있느니라.

지리 십처, 십승, 십자자를 내건 십자처의 상 중 하의 운이 있지만 중간에 있는 십승만이 맑고 밝은 극락선경에 이를 수 있느니라. 증천운에는 세분의 정도령이 오시므로써 완성된다.(一二三)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은가? 심승설에는 선입 중입 말입의 삼자가 있는데 다 소용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첫 번째 정도령(一), 두 번째 정도령(二)이 사람을 살리고 선경을 이루려고 충성을 다하다가 명을 다하니 오직 그것이 슬플 뿐이로다.

穴下躬身一二九 혈하궁신일이구
日月無光五九論 일월무광오구론
一三三五豫定運 일삼오예정운
列邦混亂人不勝 열방혼란인불승
四年逃命後日明 사년도명후일명
小頭無定火世 소두무정화세

生者幾何 생자기하
一四四半死之人 일사반사지인
兩雙空六 送舊迎新 兩雙空六 송구영신
數千呼萬世 神天民 수천호만세 신천민

혈하궁신(穴下躬身)은 궁(窮)의 파자이다. 어려운 상태인 약조건인 경우 1290일의 환란을 겪은 다음 해와 달의 빛이 없어도 밤이 없는 밝고 밝은 선경 세계는 오고(五九)야 말고 천 지 인의 주인공 구세주 즉 15진주는 예정된 운으로 오리라.

세계열방은 혼란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느니라. 4년간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 다닌 후에야 빛을 보리라.

소두무족(小頭無足=天火) 즉 하늘의 불이 내려오면 살아날 자 몇인가? 일사사(一四四) 즉 삼위일체 구세주와 그 외 사람들은 절반은 죽으리라.

육천년 만에 삼위일체 구세주가 나오므로써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니 마귀가 지배하던 죄악세상은 가고(송구送舊)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리라. 수많은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세를 부르리라.

양쌍육공(兩雙空六)은 거꾸로 보고 해석하면 육천이 된다. 호조건인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Immortal Valley

청와대 상춘제(常春齋), 무궁화 동산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천부인권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미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어렵다고들 한다. 이를 온전히 충족시키려면 대통령은 '전지전능의 구세주 메시아' 수준이어야 하고, 백성들은 영생불멸(永生不滅)의 홍익인간 인내천으로 도성인신(道成人身)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궁극적 목적이다.

한민족은 그 불멸의 혼을 거주 생활 공간의 구조물에 담아내었다. 청와대 상춘제(常春齋), 무궁화(無窮花)동산! 상춘제(常春齋)의 봄 춘(春)은 파자(破字)로 삼(三)+인(人)+일(日)이다. 전지전능의 삼위일체(三位一體) 완성자를 상징한다. 상춘(常春)이란 영생불멸의 절대자를 말한다. 옳고 바른 완전자를 통해서 온전한 생각이 탄생하게 되고, 영생불멸의 극락정도가 건설된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는 "다스릴 정(政)은 바르게 할 정(正)이다. 그대가 솔선하여 스스로를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격암유록(格庵遺錄)」과 탄허스님의 「탄허록」에는 始終良野素砂地(시종간야소사지) 즉 "시작도 끝맺음도 간방의 소사에서 한다"라고 했고,

「율곡비기(栗谷秘記)」는 더 소상하게 '역곡승지(驛谷勝地)' 라고 기록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부천 소사역곡'에 출현하는 정도령(正道令)이라는 대선각자를 통해서 불사영생과 평화통일의 정도(正道)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영생불멸(永生不滅)의 사시장춘(四時長春=常春)은 모든 생명체가 이루고자 하는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징조는 3무(無)다. 점차적으로 남녀(男女)의 구분, 피아(彼我)의 구분, 생사(生死)의 구분이 없어진다. 따라서 성징(性徵)이 중성으로 변함에 출산이 줄고, 빈부귀천의 다툼이 없어지며,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

우주와 생명체의 대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메시아 정도령의 분신이 삼신산의 불로초, 감로해인 이슬성령이다. 하나의 마음씨로 표현한다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하나님처럼'이다. 북핵문제, 적폐청산 등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파고든 모든 불안과 공포, 슬픔과 상처, 분노와 갈등이 삼신산의 불로초가 되는 이 '하나의 마음씨'로 정화 치유되고, 용서와 화해의 봄을 맞이하는 상춘제의 건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사천제단 : (055)855-4270	청주제단 : (043)233-6146	岐阜祭壇 : (0584)32-1350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53)474-7900	포항제단 : (054)291-6867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안성제단 : (031) 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순천제단 : (061)744-8007	橫濱祭壇 : (045)261-6338	神奈川祭壇 : (045)451-3150
평택제단 : 010-9261-9974	진주제단 : (055)745-9228	정읍제단 : (063)533-7125	神戸祭壇 : (078)862-9522	Philadelphia : (215)722-2902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군산제단 : (063)461-3491	下關祭壇 : (0832)32-1988	London : (0208)894-1075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대전제단 : (042)522-1560	久留米祭壇 : (0942)21-4669	Sydney : (006)6142-1738136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